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평양시내 경공업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평양시내 경
공업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평양방직
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종합지령
실에 들리시어 데트론인 견천생
산공장에 대한 해설을 들으신 다
음 만부하의 동의를 세차게 울려
펴지는 직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
시면서 생산정형과 새로 장비한
설비들의 기술적특성과 성능을
구체적으로 조해하시였다.

공장의 로동계급이 양복 및 샤
쯔천을 대량생산해낼 수 있는 현
대적인 데트론인 견천직장을 꾸
려놓은 것은 경탄할만 한 성과라
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공장에서 데트론인 견천직장을
새로 건설한 결과 지난 시기에
는 일반천밖에 짤수 없었던 데
트론을 가지고 명주처럼 부드럽고
윤기가 나는 각종 양복 및 샤
쯔천을 생산해낼 수 있게 되었다
고 하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
시하시였다.

데트론인 견천으로 만든 양복
및 샤쯔감들과 면격자천, 창가
림천들을 일일이 보아주시고 그
질이 높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이
좋아하는 옷감과 각종 천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지적하
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어 현
장에서 공장기동예술선동대원들

의 공연을 보아주시고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해 높이 평가하시면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속에서는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가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평양방직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파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평양방직공장의 로동계급이 경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찰하기 위한 투쟁을 즐기차
게 벌려 질좋은 옷감을 더 많이 생산공
급함으로써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에 적극

기여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
하시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락랑봉화피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연혁소개실을 돌아
보신 다음 여러 생산업체들에 들리시어 공
장관리운영과 생산실태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조해하시였다.

정결한 작업장마다에 주련이 늘어선 설
비들에서 쉬임없이 생산되어 나오는 색깔
고운 갖가지 제품들을 보시고 우리 인민
들과 여성들에게 질좋은 옷과 기호품을 더
많이 보장해줄수 있게 됨에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공장의 로동계급이 인민에 대한 협진적

복무정신을 안고 여러가지 피복류생산에
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인민생활향
상의 중요부문을 맡고 있다는 높은 책임감
을 간직하고 질좋은 피복류들을 많이 생
산함으로써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해결하
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
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높은 수준에서 보
장된 일터와 공장구내를 보시고 종업원들
이 뜨거운 조국애, 공장애를 지니고 공장
안은 궁전같이, 공장밖은 공원같이 꾸리
였으며 수종이 좋은 많은 나무를 심어 독
특한 풍치를 조성한 것은 아주 좋은 일이

라고 말씀하시였다.

보기에도 좋고 입기에도 편리한 갖가지
피복류들을 생산보장할데 대한 당의 방침
을 철저히 관찰하여야 적은 자재를 가지
고도 여러 가지 옷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
의 옷자리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하시면
서 공장에서는 우리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여러 가지 질좋은 피복제품들을 더 많이 생
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
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입는 문제를 해결하
는 것은 먹는 문제에 못지 않게 중요한 2대
부문의 하나이므로 생산을 부단히 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파업들
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락랑봉화
피복공장의 로동계급이 당의 경
공업정책을 관찰하기 위한 투쟁
을 즐기차게 벌려 질좋은 옷을
더 많이 생산공급함으로써 인민
생활향상과 강성국가건설위업실
현에 적극 기여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봉화비누
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공장의
생산업체들을 돌아보시면서 생
산업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
해하시였다.

갖가지 질좋은 세탁비누제품
들이 줄줄이 쏟아져나오는 광경
을 바라보시면서 이곳 로동자,
기술자들이 인민들의 위생문화
생활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비
누제품생산업체들을 훌륭히 꾸
리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생
산을 급격히 늘이고 있는데 대하
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투쟁성과를 높이 평가하
시였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봉화》
표 세탁비누의 질이 좋아 인민
들의 수요가 높다는 보고를 들으
시고 대단히 만족해하시면서 우
리 인민들에게 질좋은 세탁비누
를 더욱 풍족히 공급해줄 수 있
게 된 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
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봉화비누
공장은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우리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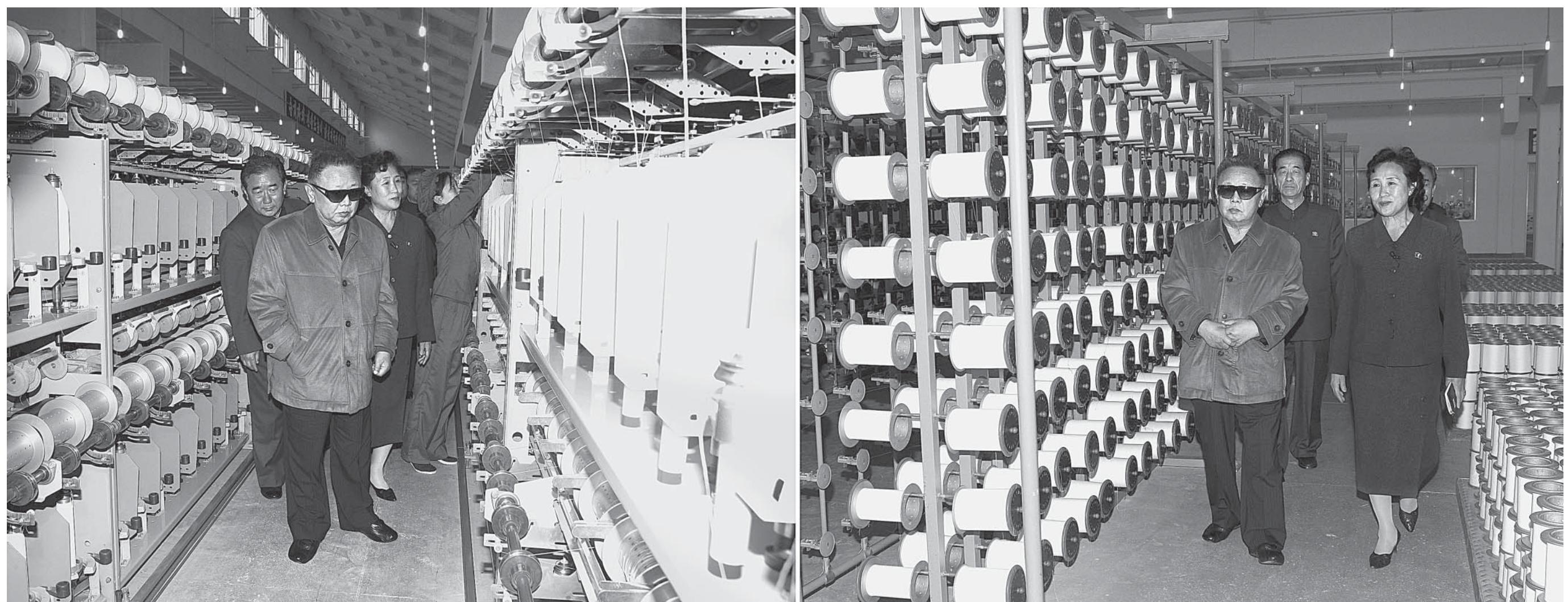
의 구상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는 공장이므로 생산을 끊임없이 늘이고
제품의 질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평양수지연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연혁소개실과 제품
진열실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
시면서 생산 및 현대화정형을 구체적으로
조해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CNC화된 생산설비
들이 늘어선 작업장들에서 쉬임없이 훌려
나오는 각종 필기도구들을 보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2면으로 계속)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평양시내 경공업공장을 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가 해방된 후 국사를 토의하는 첫 의정으로 연필문제를 제기하시였을뿐 아니라 생전에 늘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필기도구문제 때문에 마음씨오시였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동계급이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생산을 끊임없이 늘이고 설비들을 CNC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커다란 성과를 거둔데 대해 높이 평가하시였다.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우리 당의 최첨단돌파사상을 높이 받들고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

대학 교원, 연구사들과 힘을 합쳐 비상한 에국열의와 창조력을 발휘하여 공장의 CNC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다고 하시면서 이 자랑찬 성과는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지금 사회주의전선의 대격전장들에서 혁명적이며 주체교육을 받은 우리의 미더운 새 세대 청년대학생들과 교원, 연구사들이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 제끼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인 청년과학자대군은 민족번영의 추동력, 재보이라고 말씀하시

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필기도구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평양수지연필공장의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본사기자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구장양어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구장양어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알깨우기실을 비롯한 양어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양어실태를 구체적으로 조해하시였다.

맑은 샘물이 넘쳐흐르는 드넓은 양어장에 아담하게 꾸려진 각종 양어못들과 양어설비들을 보시고 건설자들과 종업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양어장의 현대화를 훌륭히 실현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구장군에서 자체의 힘으로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양어공정들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여 민물고기생산을 급격히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은것은 자랑할만한 성과라고 하시면서 양어장의 당

원들과 근로자들이 양어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해마다 어획고를 높임으로써 많은 물고기를 인민들에게 공급해주고 있는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구장양어장을 물원천이 풍부하고 수질이 좋으며 양어하기에는 둘도 없는 적지라고 하시면서 실리가 나오고 첨단설비들로 장비된 이 양어장이야 말로 우리 당이 바라는 양어장,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데려줄 수 있는 양어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오늘 우리나라에는 강과 호수, 샘과 온천이 많기때문에 양어를 대대적으로 할수 있는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양어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최근년간 군대와 사회에서 건설한 양어

장들에서 지금 많은 민물고기가 생산되어 군인들과 인민들이 그 덕을 크게 보고있다고 하시면서 선군시대의 이 자랑찬 전변은 양어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해주시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증명된 양어는 밀천을 적게 들이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대단히 경제적인 생산분야일뿐아니라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물고기를 더 많이 먹일수 있는 가장 빠른 방도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에는 강과 호수, 샘과 온천이 많기때문에 양어를 대대적으로 할수 있는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다고 하시면서 양어를 전군중적운동으로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샘물에서는 찬물을 좋아하는 물고기를

기르고 온천에서는 더운물을 좋아하는 우수성물고기를 기를수 있다고 하시면서 생물, 온천을 적극 리용하는 한편 물고기를 기를수 있는 적지들을 빠짐없이 찾아내여 양어장을 더 많이 건설함으로써 물이 있는 모든 곳에서 물고기떼가 육실거리게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농산과 축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어에서도 기본은 종자라고 하시면서 사료를 적게 먹으면서도 빨리 자라는 좋은 종자들을 적극 연구개발하고 받아들이며 모든 양어장들에 우량품종을 보장해주어 민물고기의 생산성을 끊임없이 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양어에서 호파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물고기의 생리적특성을 고려하여 어종을 총총으로 배치하는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양어장의 면적을 립체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양어의 금속한 발전을 위하여서는 양어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선진적인 사육관리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양어는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더 많이 먹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것만큼 먹이문제를 비롯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제때에 원만히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양어사업을 혁명적으로 벌려 물고기생산을 급속히 늘임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풍족히 먹이시려고 생전에 그토록 마음쓰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소원을 하루빨리 풀어드리자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남홍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남홍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비료종합조작실, 비료출하직장을 비롯한 기업소의 여러곳을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남홍의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가스화 2계렬공정건설을 단기간에 성과적으로 끌낸것은 기적이라고 하시면서 대중적영웅주의와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거창한 창조물을 일떠세운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남홍가스화대상이 완공됨으로써 비료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고 비료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가스화대상건설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로동계급의 대부대가 있기에 우리 당이 강하고 사회주의조국이 승승장구하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어 축사, 기초식품직장, 청춘원을 돌아보시면서 기업소의 후방사업정형과 로동자들의 문화정서생활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기업소에서 축사를 잘 꾸리고 사료보장 및 위생방역체계를 철저히 세워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돼지, 오리, 계사니, 칠면조를 비롯한 집진승들을 대대적으로 길러 많은 고기를 생산하고 있을뿐아니라 된



장, 간장, 두부, 우유를 비롯한 기초식품들을 질적으로 생산하여 로동자들의 식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하고있는데 대해 커다

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기업소의 일이 잘되고있는것은 든든한 후방사업의 안받침이 있었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생산의 주인인 로동자들에 대한 옳은 판점을 가지고 후방사업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이악하게 노력하고있는 기

업소의 당 및 행정일군들의 수고를 치하하시였다.

현대적으로 건설한 청춘원에서 진행되는 배구경기와 수영을 보아주시면서 로동자들이 충분한 문화휴식을 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기업소에서 건설한 현대적인 문화후생시설들은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만큼 훌륭하다고 하시면서 생산의 직접적당자들인 로동자들의 생활에 선차적인 관심을 둘리는 기업소일군들의 혁명적군중관점을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였다.

기업소에서 생산하는 각종 인민소비품들을 보아주시면서 인민생활향상에 절실히 필요한 이런 제품들을 더 많이, 더 질좋게 생산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남홍청년화학련합기업소는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임무를 지니고있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당의 호소를 받들고 산악같이 멀쳐나선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전국의 로동계급은 지금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조국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고있다고 하시면서 남홍의 전체 당원들과 군로자들이 시대의 벅찬 흐름에 발맞추어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김형직사범대학 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김형직사범대학 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숭고한 후대관을 지니시고 새 세대들에게 만복을 안겨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예술소조원들은 함창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시와 노래 《어버이수령님 친필현판앞에서》, 회상기선동 《한홀의 미시가루》, 너성중창 《전선천리 야전차 달리네》, 짧은극

《5점》, 가야금병창 《비날론 삼천리》, 너성독창 《사회주의 너를 사랑해》, 재담 《우리의 혜절》, 남성중창이야기 《강성대국래일이 우릴 부른다》, 시와 합창 《남산의 푸른 소나무》, 《조선청년행진곡》 등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펼치였다.

공연이 끝나자 어버이장군님을 우러러 터치는 환호성으로 하여 장내는 불도가니 마냥 끓어번지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고 대학생예술소조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해주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김형직사범대학 학생들이 선군시대에 창조된 군인문화를 적극 따라배워 자기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작품들을 가지고 혁명적군인정신이 맥박치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감사를 주시였다.

특히 재담 《우리의 혜절》을 비롯한 작품들은 청년대학생들은 물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는데서 의의가 대단히 큰 훌륭한 작품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김형직사범대학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몸소 대학의 현판을 직접 써주신 뜻깊은 대학이라고 하시면서 지난 시기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지원》의 사상을 대를 이어 꽂고우기 위한 교수교양과 학습, 과학연구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새 세대 청년대학생들이 강성대국건설의 주요전투장마다에서 큰 몫을 맡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조선

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다는것을 실천으로 증명해주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런 자랑스러운 청년대학생대군이 민족번영의 래일을 믿음직하게 담보해주고있기에 주체혁명위업완성은 확정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대학생들을 지역체를 갖춘 유능한 인재로, 나라의 역군으로 훈련해 키우는것은 혁명의 장래운명과 나라의 흥망성쇠와 관련되는 근본문제라고 하시면서 대학의 교수교양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본사기자

민족의 통일열망에 끝까지 도전하는 극악한 반통일대결분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대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리명박여도가 도이칠란드를 행각하면서 우리를 걸고드는 도전적방법을 훼친것과 관련하여 11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지난 8일 리명박여도는 유럽행 각의 첫 목적지인 도이칠란드에 가서 동포간단회와 기자회견 등을 벌려놓고 우리의 핵이 통일에 지장을 준다고 하면서 『포기』니 뛰어하고 채웠는가 하면 합선침몰사건과 연평도사건에 대한 『사파』를 지지여내고 있어 반공화국모략사건까지 거들며 그 무슨 『도발에 대한 응징』을 떠벌였다.

특히 우리 체제를 함부로 시비하면서 주제넘은 산대질을 하였는가 하면 베를린장벽이 어찌구저찌구하며 불운한 체제대결망상을 추구하는 열빠진 악당들을 늘어놓았다.

이것은 우리의 체제와 존엄에 대한 극악한 도발이고 내외여론과 우리의 적극적인 대화노력을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으로서 온 겨레의 치솟는 적분을 자아내고있다.

리명박여도가 이번에 남조선내에서의 반통일대결소동도 성차지 않아 해외에 나가서까지 못된 망발을 해낸것은 날로 높아가는 대화분위기를 차단하고 북남관계파탄과 『대북정책』실패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며 반공화국핵소동과 대결책 등을 정당화보려는 단말마작발악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는 그사이 미국과 피리보수파당의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책동이 국실한 속에서도 평화와 통일의 출로를 열어나가려는 데로부터 북남대화와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온갖 성의와 노력을 다 기울였으며 얼마전에는 최고의 수준에서 북남대화와 관련한 중대제의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여도는 이미 거칠이 난 모략적이고 도발적인 합선침몰사건과 연평도사건에 대한 『사파』와 『핵포기』 등을 고집하면서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대화를 가로막고 우리의 선의와 최고존엄에 도전해나섰을뿐 아니라 수급줄개들을 번갈아 내세워 저들의 이른바 『대북강경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듯이 떠들어내고있다.

미국의 핵전쟁장비를 대체적으로 끌어들이고 외세와 암합하여 민족의 머리우에 핵참화를 물어오는 북침전쟁연습을 매일과 같이 벌려놓으면서 그 누구의 『핵포기』를 부르짖고 북남관계를 전면폐쇄와 대결의 극단으로 치달아오르게 하고서는 대화의 문이 열려져있다고 하고 『통일』을 떠드는것이야말로 역도의 철면피성을 만천하에 보여주는것이다.

원래 리명박여도와 같은 반통일대결분자는 『통일』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것 자체가 역겹기 그지없으며 민족의 통일념원에 대한 모독이다.

피뢰페당이 일도당토않게 특대형 모략극인 합선침몰사건과 연평도사건에 대한 우리의 『사파』를 부남대화의 문으로 설정한것은 결국 대화를 하지 않고 우리와 끝까지 엊서려는 흥심을 드러낸것이며 그 누구의 『핵포기』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것 역시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미국과 함께 북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가소로운 망동이다.

더우기 다른 나라의 통일방식에 혼혹되어 그것을 수입해보려고 획책하는것은 하늘이 무너지기를 고대하는것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망상이다.

조선반도는 도이칠란드가 아니다.

피뢰페당이 도이칠란드에서 같은 군변사례를 꿈꾸지만 조선반도에서 4.19와 같은 군변사례가 일어나 몇차례나 『정권』이 뒤집힌 곳은 다름아닌 남조선이다.

현 리명박 『정권』 역시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반민민적악정으로 지금 민심이 폭발전야에 이르러 극단의 위기에 처해있다.

제 집안풀이 그 모양 되어가지고 서도 감히 그 누구를 넘보면서 망상하고 있는것이야말로 얼마나 회비국적인 추태인가.

리명박여도는 우리의 기질과 현실을 빠바로 보고 분별없이 놀아대지 말아야 한다.

얼마전 유럽행 각자로 도이칠란드에 들린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북남관계문제와 관련하여 이어저려한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무슨 학수뇌자회의 개최를 요란히 내기 위해 우정 베를린에 까지 가서 이야기를 하였지만 큰 산이 울어 쥐 한마리라는 격으로 너무도 초라한 소리들이었다. 그러나 새로운것이란 전 험 없고 종래의 반통일대결정책을 다시 품수에 배기고 심술이 빠들어진 반통일대결광신자는 없다.

역도가 접집할 때 대미추종, 동족대결정책을 선포하면서 임기기간 북남대화를 하지 않아도 좋다고 떠벌인 것을 세상사람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리명박여도의 그 추악한 포고가 현실로 되고 역도가 끝까지 대결로 나가려는것이 명백해진 조건에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립장을 심중히 고려해보지 않을수 없다.

허황한 미련과 망상에 빠져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자와 마주앉았을때 얼을것이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우리는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모독하고 우통하는자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무자비하고 단호히 대응해나갈것이다.

체제대결은 전쟁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이 땅에 전쟁이 터진다면 그것은 우리 민족의 정의로운 조국통일에 국세천으로 될것이다.

리명박여도는 우리의 기질과 현실을 빠바로 보고 분별없이 놀아대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발하여 남조선에 보수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시종일관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런데 남조선보수당국은 대결적인 『비핵, 개방, 3 000』을 아직도 계속 고집하는가 하면 저들의 동족대결정책의 산물인 모략적인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에 대한 그 누구의 『사파』와 『핵포기』만을 운운하며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계속 거부하고있다.

이렇게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통일』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것은 그 자체가 역겹기 그지없는것으로서 겨례의 통일념원에 대한 모독이 아닐수 없다.

리명박이 그 무슨 『핵포기』를 떠드는것은 사실상 공화국을 무장해제시키고 미국과 함께 북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가소로운 망동이다.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를 산생시키고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외세에 대해서는 비호두둔하고 자기의 존엄을 지키려는 동족에 대해서는 『핵포기』를 넘불처럼 외워대며 악랄하게 걸고드는 현 보수당국에 대한 겨례의 분노는 이미 하늘에 닿았다.

남조선보수당국이 공화국의 성의있는 대화와 협상체의를 나약으로 오만하고 정세를 계속 긴장시키면서 끝까지 대결과 전쟁의 길로 나가고있는 조건에서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그들자신이 지게 될것이다.

보수당국은 그 누구도 귀기울이지 않는 서풀짜리 대결타령을 계속 늘어놓을수록 안팎의 비난과 배격만을 받을것이다.

서명수

정반대로 공화국은 체제가 의 길로 질주하고있다. 지금 정치적으로 최대로 불안정하고 언제 『급변사태』가 터질지 모를 지역은 바로 남조선이다. 리명박 『정권』의 사대매국, 동족대결책동과 반인민적악정으로 말미암아 보수당국에 대해서는 일상으로 일상으로 끊임없이 원성과 분노는 하늘에 닿고있다. 지난해의 지방자치제선거에 이어 얼마전의 보충선거에서 도 집권세력은 참담한 패배

달하고 『못살겠다, 갈아엎자!』가 일상생활의 구호로 되고있는 남조선에서 이제 4.19와 같은 인민봉기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수 없다.

남조선의 집권자는 뚜바로 알아야 한다.

이 땅에서 통일을 안아오는 주역은 반통일보수세력이 아니다. 그것은 북과 남의 우리 겨례이다.

조선반도에서의 통일은 도이칠란드식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이루어될것이다.

리명박이 이번에 도이칠란드를 행각하면서 『핵무기』를 가지고 통일이 됐을 때 이웃 나라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것』이라

는 말도 했는데 우리 민족의 확고한 지향과 굳센 의지는 바로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식으로 통일을 이루하자

는 것이다. 그 우리식의 통일은 자주통일이고 민족대단합에 의한 통일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를 당하였다. 선거폐배의 후유증으로 『한나라당』은 가라앉은 배가 되었고 집권자와 여당의 『지지률』은 평바닥에 곧두박질했다.

경제와 민생도 영망진창이다. 각종 업체 『대한』과 『대한』이 고리력을 끌고 일어나고 실업자, 극빈층의 대열이 늘어나 살기 힘든 사람들은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다.

누가 남조선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가. 통치총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가 국도에

되였다.

노래 『승리의 길』이 말해주듯 공화국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 반면에 남조선은 과국

의 길로 질주하고있다.

여기는 베를린이 아니다. 리명박이 이번에 도이칠란드를 행각하면서 『핵무기』를 가지고 통일이 됐을 때 이웃 나라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것』이라는 말도 했는데 우리 민족의 확고한 지향과 굳센 의지는 바로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식으로 통일을 이루하자

는 것이다. 그 우리식의 통일은 자주통일이고 민족대단합에 의한 통일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을 당하였다. 선거폐배의 후유증으로 『한나라당』은 가라앉은 배가 되었고 집권자와 여당의 『지지률』은 평바닥에 곧두박질했다.

경제와 민생도 영망진창이다. 각종 업체 『대한』과 『대한』이 고리력을 끌고 일어나고 실업자, 극빈층의 대열이 늘어나 살기 힘든 사람들은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다.

누가 남조선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가. 통치총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가 국도에

되였다.

노래 『승리의 길』이 말해주듯 공화국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 반면에 남조선은 과국

의 길로 질주하고있다.

여기는 베를린이 아니다. 리명박 『정부』는 에씨 무시하는것인지, 아니면 정말 모르고 있다는건지 확당 할뿐이다.

『정부』가 매번 강조하는

갑을관계를 바로잡겠다는 발

한 메아리에 다행이다. 정치학에서 힘은 『소유적』인 개념이다. 힘은 갖고있는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 행사하는 것이다....

리명박 『정부』는 북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있다고만 소리치고있다. 그러나 힘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 행사되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중단된채로, 모든 대화가 끊긴채로 대북영향력을 결코 편월될수 없고 행사될수 없다.

본사기자 최광혁

을 당하였다. 선거폐배의 후유증으로 『한나라당』은 가라앉은 배가 되었고 집권자와 여당의 『지지률』은 평바닥에 곧두박질했다.

경제와 민생도 영망진창이다. 각종 업체 『대한』과 『대한』이 고리력을 끌고 일어나고 실업자, 극빈층의 대열이 늘어나 살기 힘든 사람들은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다.

노래 『승리의 길』이 말해주듯 공화국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 반면에 남조선은 과국

의 길로 질주하고있다.

여기는 베를린이 아니다. 리명박 『정부』는 에씨 무시하는것인지, 아니면 정말 모르고 있다는건지 확당 할뿐이다.

『정부』가 매번 강조하는

갑을관계를 바로잡겠다는 발

한 메아리에 다행이다. 정치학에서 힘은 『소유적』인 개념이다. 힘은 갖고있는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 행사하는 것이다....

리명박 『정부』는 북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있다고만 소리치고있다. 그러나 힘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 행사되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중단된채로, 모든 대화가 끊긴채로 대북영향력을 결코 편월될수 없고 행사될수 없다.

본사기자 최광혁

을 당하였다. 선거폐배의 후유증으로 『한나라당』은 가라앉은 배가 되었고 집권자와 여당의 『지지률』은 평바닥에 곧두박질했다.

경제와 민생도 영망진창이다. 각종 업체 『대한』과 『대한』이 고리력을 끌고 일어나고 실업자, 극빈층의 대열이 늘어나 살기 힘든 사람들은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다.

노래 『승리의 길』이 말해주듯 공화국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 반면에 남조선은 과국

의 길로 질주하고있다.

여기는 베를린이 아니다. 리명박 『정부』는 에씨 무시하는것인지, 아니면 정말 모르고 있다는건지 확당 할뿐이다.

『정부』가 매번 강조하는

갑을관계를 바로잡겠다는 발

한 메아리에 다행이다. 정치학에서 힘은 『소유적』인 개념이다. 힘은 갖고있는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 행사하는 것이다....

리명박 『정부』는 북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있다고만 소리치고있다. 그러나 힘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 행사되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중단된채로, 모든 대화가 끊긴채로 대북영향력을 결코 편월될수 없고 행사될수 없다.

본사기자 최광혁

을 당하였다. 선거폐배의 후유증으로 『한나라당』은 가라앉은 배가 되었고 집권자와 여당의 『지지률』은 평바닥에 곧두박질했다.

경제와 민생도 영망진창이다. 각종 업체 『대한』과 『대한』이 고리력을 끌고 일어나고 실업자, 극빈층의 대열이 늘어나 살기 힘든 사람들은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다.

노래 『승리의 길』이 말해주듯 공화국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 반면에 남조선은 과국

의 길로 질주하고있다.

여기는 베를린이 아니다. 리명박 『정부』는 에씨 무시하는것인지, 아니면 정말 모르고 있다는건지 확당 할뿐이다.

『정부』가 매번 강조하는

갑을관계를 바로잡겠다는 발

한 메아리에 다행이다. 정치학

남을 걸고드는 악습을 버려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 대변인 담화

보도에 의하면 지난 4월 12일부터 남조선의 《농협》(농업협동조합중앙회) 금융컴퓨터망체계가 최악의 마비 상태에 빠지는 사상 초유의 금융컴퓨터망흔란이 일어났다고 한다.

이로 하여 억대의 손실이 나고 남조선이 세계면전에서 크게 망신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한 《활동조사》를 한달 가까이 벌려놓고 분주량을 펴우던 역적폐당이 피뢰정보원과 검찰을 내세워 이를 《북의 소행》으로 최종결론하여 세상에 공개한 것이다.

역적폐당이 《북의 소행》이라고 내놓은 증거란 《농협》금융컴퓨터망체계 공격에 사용된 인터넷주소가 우리 체신성의 인터넷주소와 동일하다는 것이고 공격수법이 정교하고 치밀한 원격조종방식에 따른 것으로 하여 공격자가 전문싸이버전부 대로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막 하지 실행하기 어려운 공격이고 자금이나 자료절취와 같은

《특정의 리익을 쟁기기 위한》 공격이 아니라 《무차별적인 파괴를 노린》 반복된 공격인 것으로 하여 《북의 소행》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황당무계하기 그지없는 근거와 그에 바탕을 둔 혀황한 주장이 아닐수 없다.

원래 싸이버전은 5차원 공간을 리용하여 서로 자기를로 출시키지 않고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미국이 고안해낸 특수한 형태의 침략전쟁방식이다.

아마 역적폐당이 이러한 교전방식을 만들어낸 미국상점에게 물어보아도 그러한 근거로 《북의 소행》이라고 단정한다면 싸이버전에 대한 초보적인 개념도 모르는 무지를 드러낸것으로 될뿐이라고 질책하였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당한 《농협》당사자들까지도 《북의 소행》이라는 발표가 과학성이 없는 《서론과 결론》이라고 항변해나서고 피뢰군 기무사마저 벌어진 사태를 《북군부의 공격》으로 밀어붙일 수 없다고 공식발표하는 정도에 이

르렀다. 그런가하면 전문가들은 만약 공격에 리용된 인터넷주소가 미국이나 일본, 남조선이면 미국이나 일본, 남조선도 이번 혼란을 조성한 당사자로 되는가고 하면서 《북의 소행설》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남조선 각계에서는 지난해 《천안》호를 침몰시켰다는 어뢰추진체에 《번》이라는 글자가 씌여져 있어 《북련계설》을 주장하였는데 이번 《농협》 금융컴퓨터망체계에 대한 공격에 리용된 인터넷주소에는 도대체 《번》이 몇개나 더 붙어 있는가고 신랄하게 애유하고 있는 형편이다.

결국 역적폐당의 《북의 소행설》은 제 집안에서 까지 새로운 의혹의 대상으로 되고 있으며 그것이 그대로 또 하나의 모략국, 날조국으로 세인의 쓴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지금 역적폐당은 《북의 소행설》을 퍼뜨리는 것으로 밀리리체 뒤흔들리고 있는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유지하고 4.27보충선거를 전후하여 여지 없이 드러난 집권당기위기를 수습하

며 민족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흐름을 파탄시킨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획책하고 있다.

모든 움직임은 역적폐당이 내돌리고 있는 《북의 소행설》이 이러한 불순한 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꾸며낸 또 하나의 새로운 반민족적 모략국이며 《천안》호침몰사건과 같은 날조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남에 대해 말할 때 자기부터 살펴보아야 하며 남을 걸고들기보다 제

교부터 먼저 쟁으라는 말이 있다.

역적폐당은 남을 걸고드는 체질화된 악습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전면봉기에 직면한 제 집

안처지도 모르고 그 누구의 《급변사태》를 바라며 벌리는 전쟁연습소동이나 당장 걸어치워야 한다.

역적폐당은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모략국, 날조국을 만들어내면 낸수록 얻을것이란 쓰디쓴 수치와 참패뿐이라는 것을 뚜바로 알아야 한다.

주제 100(2011)년 5월 10일

평양

개각 놀음은 무언을 보여주는가

최근 남조선당국이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를 비롯하여 5개 부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각계총속에서는 《보충선거에서 드러난 심판을 철저히 외면한 국민무시개각》, 《대통령의 친위부대 2진과 1진이 돌아가면서 요직에 등용되는 회전문인사》라는 조소와 비난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다.

우연한 소리가 아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4월 27일 남조선에서 있은 보충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은 대합제를 당하였다.

이것은 인민의 머리우에 군림하여 파

쇼와 동족대결, 반민족적 악정책에

달려온 보수집권세력에게 내린 민심의

집언한 심판이다.

이에 당황한 청권세력이

국민의 뜻을 무겁고 무섭게

받아들인다.

고하면서 벌려놓은것이

이번의 개각이다.

하지만 정작 개각을 보면

《국민의 뜻》

이니 뭐니 하는것이 얼마나

속에 없는 거짓말이었는가 하는것이

뻔히 들여다보이고 있다.

이번에 장관 자리에 내정된 인물들은

지금까지 청와대석비서관 또는

《정부》

부처의 요직에 있으면서 집권자

의 손발이 되어 반민족적정책을 주도해온 인물들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박재완

의 경우만 보아도 친리계의 핵심인물이다.

그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서 당국의 반도동진기업정책의

《열혈

주종자》로 되어 로동계의 거센 항의와

규탄을 받아왔다.

이런 자들을 장관 자리에 내정한 것은

보수당국이 민심에는 아랑곳없이 집권 후반기에도 저들의 독단과 반인민적 악정을 계속 강행 실시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우기 이번 개각 놀음에서 악질반통 일대 결분자인 현인택을 통일부 장관 자리에 그냥 놀려놓은 것은 온 겨레의 커다란 격분을 사고 있다.

현인택은 통일부 장관 자리에 앉은지 지난 2년간 국도의 동족대결정책으로 북남관계를 최악의 위기에 몰아왔거나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크게 증대시킨 장본인의 하나이다. 이런가가 통일부 장관 자리에 그냥 있으면 북남관계 개선은 언제가도 이루어질수 없다. 하기야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바라는 온 겨레가 민족에게 백해무익한 현인택의 목을 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내외가 이번 개각을 지켜보면서 주요 관심사로 삼은것도 통일부 장관의 교체 문제였다.

그런데 민심의 이러한 요구에 도전하여 남조선의 집권세력은 현인택을 또 다시 릴임시키였다. 이것은 저들의 대결정책에 대한 털끝만 한 반성이 없고 앞으로도 북남대결정책을 계속 고집하려 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남조선의 집권자들자신이 《북에 잘못된 신호를 줄수 있다.》느니,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기조유지》라니 하며 떠들고 있는 것도 그 속심을 드러낸 것이다.

현실은 남조선 현 집권세력의 반인민적, 반민족적 파쑈대결본성이 추호도 달라지지 않았다는것을 다시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김철호

《천안》호가 잠수함과의 충돌로 침몰됐을 가능성은 보여주는 자료 공개

남조선의 《자주민보》는 5월 2일 《〈천안〉 함, 선명한 TOD 보니 잠수함 충돌 가능성 더 높아지서》라는 제

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최근 《지수바라기》라

는 신문을 가진 네리즘이

《〈천안〉 함 TOD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제목의 글

을 통해 국방부에서 《〈천안〉 함 진실》을 알리기 위해

외국인을 상대로 만들어 공개한

증명하고 있다.

실제 이 물체가 우로 잠긴

돛아오를 때 거대한 몸뚱이

의 일부가 수면위로 시커멓게 올라오고 동시에 땅쪽 텁미와 텁미와 함께 출렁이는 장면을 분명히 확인할수 있는 동영상이었다. 이 글의 필자는 잠수함이라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

에 불룩 올라온 마스트를 가지고 있고 물속에 거대한 체적을 가졌으며 강력한 기관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국방부의 주장대로 부유물이 아니라 아래에 거대한 체적을 가진 물체이며 조류의 흐름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것을 보면 강력한 기관을 장착한 물체임이 분명하다고 동영상 복사화면 등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결국 《천안》 함은 잠수함과의 충돌로 침몰됐을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진 것이다.

본사기자

반민주, 반민족 행위를 일삼는 당국의 퇴진을 주장

재미동포 인터넷 신문 《민족통신》이 6일 《애국 청년 탄압 중단하라》라는 제

목의 글을 실었다.

글은 4일 남조선에서 독재 《정권》의 공안기구인 정보원과 경찰이 6.15공동

선언 실천 청년 학생 대성원들에 대한 탄압이 종지될수 없다고 글은 주장하였다.

반민주, 반민족 세력인 리

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애국 청년들에 대한 탄압이 종지될수 없다고 글은 지적하였다.

글은 남조선에서 현 《정권》을 퇴진시키고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통일운동세력 말살을 노린 탄압 소동

최근 남조선의 공안당국이 진보적인 통일운동단체들과 국적인 사들에게 대한 탄압 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남조선의 정보원을 포함한

공안당국은 《출판물을 통

해 북의 체제를 찬양했다.》

느니 《북의 교류, 접촉

을 통해 《보안법》을 위반하였다.

더우기 6.15공동선언발표

후 북과 남사이에 합법적으로

진행되어온 통일론의 활동들을

《정권》이 바뀌었

다고 해서 《보안법》 위반으로

몰아 구속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리치에 맞지 않는 행

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

선공안당국은 애국적인 통

일운동단체들과 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적인 사람들

을 《리적 단체》, 《친북

세력》으로 몰아 악랄하게

탄압함으로써 저들의 추악

한 반통일적이며 파쑈적인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집권 초기부터 남조선당국이

북남사이에 책임을 표명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을 전면 부정해 나서면서

《비핵, 개방 3000》과 같

은 반공화국 대결정책으로 민

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

과 평화번영의 앞길에 차단

봉을 내리웠다는 것은 다 아

는 사실이다. 지난 3년간 남조선당국이 통일에 국세력을

을 대상으로 하여 벌린 대대

적인 겸거신으로 많은 사람

들이 청탁속에 끌려갔으며

최첨단돌파의 나날에 이룩된 성과들

* * * * * 제26차 중앙과학기술축전장을 돌아보고 * * * * *

『CNC』, 『최첨단돌파』

시련과 난관이 겹쌓였던 10여년전까지만 해도 이 단어들은 사람들의 귀에 설었다.

기초가 든든한 자립경제의 위력

무릇 과학기술축전이라고 하면 나라의 과학기술발전 모습과 경제발전상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4월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된 제26차 중앙과학기술축전이 시사해 주는 바는 자못 크다.

경공업과 농업, 석탄, 전기, 금속, 기계, 생물, 화학 등 19개 분야로 나뉘어 지방 과학기술축전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350여 건의 과학기술자료들이 출품된 이번 축전은 핵심기초기술을 비롯한 기초공학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 최첨단연구성과들이 이전 시기에 비해 많이 전시된 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커졌다.

그중에서도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주체비료생산체계 확립에 크게 기여한 가스발생공정의 분산조종체계』, 『비닐론설유비에 의한 비닐론천생산』, 『주체철용 광로생산체계 완성』을 비롯

었다. 그러나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려나가는 오늘날에는 사람들을 속에 일상생활용어로 자리 잡았다.

평가된 대규모현속생산공정의 통합자동화체계를 놓고 서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CNC화의 높은 단계를 이루는 통합자동화체계는 100% 정보화된 CNC작기계들로 이루어진 전반적인 생산공정과 소재판리, 실적판리, 기대판리, 경영판리체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통합되고 컴퓨터에 의해 생산조직과 지휘가 이루어지는 리상적인 생산체계이다.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이르는 끽마다에서 생산공정의 CNC화와 통합생산체계, 무인화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경제강국을 점령해가는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현실이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연



스화대 상설비제작, 무산왕산련합기업소 체광 및 선광 생산공정의 현대화실현, 새로운 철광산후보지 탐사방법 확립, 양말생산공정의 통합생산자체계, 우리식의 최첨단남새화초생산기술, 최첨단생물공학제품들도 비롯한 수많은 연구성과들도 끊임없이 비약하는 전반적과학기술의 위력을 한눈에 알수 있게 했다.

실리가 큰 우량종돼지풀종

축전기간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좋은 연구성과들도 많이 출품되어 참관자들을 흥미롭게 했다. 그중에서도 평양돼지공장에서 내놓은 적게 먹고 빨리 자라며 고기맛이 좋은 우량종돼지풀종이 호기심을

끌었다. 경제적효과성이 큰 우량종돼지풀종을 하루빨리 증식시켜 고기문제를 원만히 풀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는 평양돼지공장일

군의 말을 들으니 비단옷을 입고 훈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부림없이 살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이 금시라도 눈앞에 보이는 듯 싶었다.

축전기간 참가자들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

보화를 적극 실현하는데 이

바지한 연구성과들을 두고 경험들을 나누었다.

이번 축전은 우수한 첨단과학기술성과들을 널리 보급하고 참가자들 모두가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배짱으로 세계를 향하여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해갈 애국의 마음을 깊이 가다듬게 한 뜻깊은 계기로 되었다. 축전장을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호흡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본사기자 흥법식

조선사람은 언제부터 차를

마시기 시작했는가.

이에 대한 정확한 역사기록은 없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세나라시기에 이미 조선

사람들이 차를 달여마셨다는 사실이다.

『삼국사기』(권 10 신라

본기 흥덕왕 3년 12월 초)

에는 당나라에 들어갔던 사신 대

령이 차종자를 가지고와 그

차나무를 지리산에 심게 하

였다고 하면서 『차는 선덕

왕부터 있었다. 이에 있어서 더우 성행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신라 흥덕왕(통치년 간

826~836년) 시기는 『바티의 제왕』이라고 불리우던 장보

고왕(통치년 간 514~540년) 때인 528년 고구려승

려 목호자가 일선군(선산)에

와서 보급시켰다고 밝혀져 있다.

바로 이렇게 불교가 고

구려를 거쳐 신라와 백제에

퍼지면서 차도 함께 보급되

었던 것이다.

고구려 사람들이 차를 마신

것은 고구려무덤벽화를 통해

서도 알수 있다.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집안)에는

씨름무덤(각지총)과 춤무덤

(무용총)이 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차나

무는 7세기 전시기에 재배

되었고 우리 선조들은

7세기 전시기에 차나무일

을 가공하여 달여마셨음을

알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차는 불교

가 들어오면서 차도 함께

보급되었는데 그들이 있

는데 백제의 차나무와

차마시는 풍습이 불교와 더불어 일본에도 퍼진 것으로 추측된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소장

교수 박사 조희승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된장

된장은 우리 민족의 뛰어난 지혜와 창조력, 독특한 식생활문화를 특징짓는 우수한 민족식품으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옛 역사기록에는 발해의 명산품으로 『콩을 소금과 짜어서 어두운 곳에서 발효시킨 시』를 끓였다.

력사학자들은 『시』는 씨장, 된장 또는 짠맛의 메주 등 어려운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더홍리의 고구려벽화무덤에 있는 묘지명에 『많은 사람을 동원시켜 큰 공사를 벌렸는데 흰살밥, 고기, 술과 함께 장도 한창고분이나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고구려시기에 벌써 장도 선조들의 식품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예로부터 된장은 음식의 맛을 내는데서 가장 유통이라는 의미에서 『팔진미』, 약효가 높다고 하여 『팔방암음식』이라고 불리웠다.

『밀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뚝배기보다 장맛』과 학자들은 조선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암발생률이 특별히 낮은 원인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 과정에 메주에서 서식하는 미생물과 곰팡이가 혼합된 상태에서는 아플라토신이 생산될 수 없다는 것을 확증하였다.

된장은 매집에서 제각기 담가 먹는 것으로 하여 그 방법과 맛이 집집마다 독특한 음색과 형상이 이 풍부한 것으로 하여 다른 약기들에 비하여 훨씬 발전된 형태의 약기이다.

민간에서 보급되어 오던 해금은 고려때에 이를 계급이라는 이름으로 궁중음악에도 이용되었으며 바로 이 시기에 두 현사이에 창대쪽을 넣고 그어당겨 소리를 내는 현악기로부터 말총을 베운 편으로 마찰시켜 소리를 내는 찰현악기로 개조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과학자들은 된장이 간기능을 강화시켜 준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다고 한다.

옛 선조들은 딸을 법도 있는 집에 시집보내려면 33가지 담당그는 법을 익혔기 때문에 그집의 품위가 결정되었다고 한다.

옛 선조들은 딸을 법도 있는 집에 시집보내려면 33가지 담당그는 법을 익혔기 때문에 그집의 품위가 결정되었다고 한다.

장의 기본원료인 콩에는 각종 비타민과 칼리움, 리, 철 등 사람의 몸에 필요 한 많은 영양소들이 들어있고 특히 사람의 몸에 필요한 5가지 사포린이 포함되어 있다.

된장은 소화불량, 부종과 어려움, 임신하혈, 빈혈, 식중독과 설사, 초기감기 등은 물론 가벼운 상처, 생손앓이, 두드러기 등을 치료하는 비상약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해금은 고조선시기부터 사용되었던 우리 나라의 고유한 민족찰현악기이다.

해금은 구조가 간단하지만 맑고 아름다운 독특한 음색과 형상이 이 풍부한 것으로 하여 다른 약기들에 비하여 훨씬 발전된 형태의 약기이다.

민간에서 보급되어 오던 해금은 고려때에 이를 계급이라는 이름으로 궁중음악에도 이용되었으며 바로 이 시기에 두 현사이에 창대쪽을 넣고 그어당겨 소리를 내는 현악기로부터 말총을 베운 편으로 마찰시켜 소리를 내는 찰현악기로 개조된 것으로 인정된다.

오늘 공화국에서 민족악기

를 개량하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해금은 소해금, 중해금, 대해금, 저해금 등 4가지 종류로 되었으며 이것은 해금속악기군을 이룬다.

개량된 해금속악기들은 원래의 고유한 음색을 보존하면서도 쇠소리가 없는 맑고 부드러운 울림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그 음량이 훨씬 커지고 음역도 넓어졌다.

연주성능과 표현능력도 매우 강화되었다.

그리하여 해금속악기들은 민족관현악에서 기본 악기의 하나로 되고 있으며 우리의 주체적재합관현악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흥법식

를 개량하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해금은 소해금, 중해금, 대해금, 저해금 등 4가지 종류로 되었으며 이것은 해금속악기군을 이룬다.

개량된 해금속악기들은 원래의 고유한 음색을 보존하면서도 쇠소리가 없는 맑고 부드러운 울림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그 음량이 훨씬 커지고 음역도 넓어졌다.

연주성능과 표현능력도 매우 강화되었다.

그리하여 해금속악기들은 민족관현악에서 기본 악기의 하나로 되고 있으며 우리의 주체적재합관현악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차나무는 7세기 전시기에는

재배되었고 우리 선조들은

7세기 전시기에는 차나무일

을 가공하여 달여마셨음을

알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차는 불교

가 들어오면서 차도 함께

보급되었는데 그들이 있

는데 백제의 차나무와

차마시는 풍습이 불교와 더불어 일본에도 퍼진 것으로 추측된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소장

교수 박사 조희승

녀교수의 증언 (7)

글 김호성, 그림 김철민

아들고 읽고 또 읽었다.

『무... 무접고도 가혹한

진실을 봐야 해요!』

일진의 목소리가 귀전을

후려쳤다.

『아!...』

더이상 자신을 지탱할수

없게 된 김일순은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무릎을 끊었다.

텅 빈 머리속에 배고

고동생을 헤집어 넣으려

졌다.

『아, 그럼구나! 아, 보고

싶구나! ...』

술만 마시면 집안을 울음

판으로 만들던 아버지의 너

나는 너자의 후회는 언제

나 이런거야.

김일순은 책상앞에 다가가

두손으로 짚은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글을 끊어놓은 그의 손이